

‘백년명문사학’ 위상 찾자

에 계시던 공덕 스님은 ‘불성생명’이라 표현했다. “자기를 바로 보자”는 것은 부처의 눈으로 보자는 말이다. 부처의 눈으로 본다면 지혜와 공덕이 구족함이 바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도업 스님은 “자기(내)는 잡철이 아니라 순금”이라며 “혹시 화가 나거나 미운 마음이 생긴다면 나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잡철이 아니라 순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엄경〉 십지품에 ‘육상(六相)이 원융(圓融)하다’라고 했다.

스님은 “육상은 총상(總相)·별상(別相)과 동상(同相)·이상(異相), 성상(成相)·괴상(壞相)이다. 이 여섯 가지가 원융하다는 것은 원만하고 융통스럽다. 아주 조화스럽게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도업 스님은 “〈화엄경〉에서는 육상이라 했지만 내가 불 때는 만상이 원융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여섯 여섯 가지 모습 뿐이겠습니까? 만가지가 있어 만물이 그대로 조화스럽고 평화스러운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탐심이나 욕심을 일으켜서 자기 분수에 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조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스님은 동국대를 예로 들었다. “이름은 동국대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첫째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없는 동국대 생각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선생님들이 안계시면 학교 운영이 안됩니다. 교수가 없다면, 학교가 안되겠죠? 또 재단이 있어야 않죠?”

도업 스님은 “동국대 입장에서 보면 학생·직원·교수·재단의 사상(四相)이 원융하다”라며 “이 네 구성원이 자기 직분만,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하면 자연의 질서처럼 평화롭고 조화롭게 굴러간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충실하다”는 것은 “-답게”를 말한다며 “학생은 학생답고, 직원은 직원답고, 교수는 교수답고, 재단은 재단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인 도업 스님의 당부는 계속됐다. “동국대는 100년 넘는 명문 사학입니다. 내가 동국대 처음 입학하던 40여년 전만해도 3~4대 명문 사학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스님은 “깨달은 눈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은 자기의 분이다. 육상이 원융해야 하듯, 동국대는 네가지 구성원들이 원융해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것을 도업 스님은 화엄의 ‘법계연기’를 빌어 설명했다.

“좁게 보면 나 혼자 사는 것 같지요? 내가 내 밥 먹고 산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계연기’에서 보면 (부처님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만물들은 서로서로 연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



습니다.” 스님은 “10촌만 넘어도 남이라 생각하고, 이북 사람들을 원수라 여기고 있다. 하지만 20대를 올라가면 21여 만명이 나와 피를 나눴고, 30대를 올라가면 21억 만명이 한핏줄”이라며 “화엄의 법계연기 사상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라고 말했다.

도업 스님은 “자기가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은 중생의 눈일 뿐”이라며 “깨달은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다. ‘산하대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밖에 있는 푸른 나무 한 그루, 꽃 한송이가 모두 나와 한몸으로 관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이 썩으면 썩이 죽습니다. 썩이 죽으면 나무가 죽고, 작은 생명체들이 죽습니다. 결국엔 사람마저 죽습니다.”

스님은 “화엄 법계사상을 온전히 인식하면 환경문제는 물론 남북관계도 수월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생명체, 사람과 자연, 이념과 이상이 하나될 수 있는 이론은 단연 화엄 사상”이라는 도업 스님의 설명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스님은 〈화엄경〉 사구계를 예로 자기(自覺)과 용심(用心)을 강조했다.

“만약 삼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모두 다란 마음으로 지은 것을 알아야 한다(若人慾了三世一切佛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

스님은 수덕사에 주석하던 덕숭총림 2대방장 벽초 스님의 일화로 법문을 끝냈다. “벽초 스님은 큰스님으로 알려졌지만 법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중들이 억지로 법상에 모시던 하시는 말씀이 ‘불법(佛法)이란 심법(心法)이다, 심법이란 용심법(用心法)이다’가 전부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마음법이고, 마음법은 바로 마음 씀씀이에 달렸다는 법문이었지요.”

60권 〈화엄경〉을 즐겼던 화엄학자의 법문의 끝은 마음이었다. 25년 교수생활과 40여년 출가생활을 회고한 강연이 끝났다. 스님과 청중들은 강의 주제처럼 ‘산하대지와 한 몸’이 되고, ‘화자와 청자가 한 몸’이 돼 있었다.

8월이면 도업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떠난다. 스님은 떠나도 스님의 가르침을 이을 또 다른 선지식이 출현하리라.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47. 고성 보광사 주지 포광 스님

창당 스님과 문공수학한 포광 김형업 스님이 있다. 고성 육천사 주지, 진주 해인대학 교수를 역임하다가 고성 시립공원에 보광사를 지어 운영하신 분이다. 이 분은 창당 스님보다도 구도의 정신이 더욱 철저하여 계를 받을 때 두 손가락을 붙여 태운 분이다.

그런데 잘 아는 신도분의 딸이 관철 결핵에 걸려 걸음을 제대로 걸지 못해 얽혀 다니면서 정진하다가 스님과 인연이 되어 가정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중풍이 들어 고성읍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마련하여 은거하고 있었다.

필자가 육천사에서 대장경을 보고 있을 때 그의 권속들이 와서 몇 번 보고 갔는데, 그 뒤 삼천포 운흥사 주지서리가 되어 가람을 수호하고 있을 때도 국회의원 최석림 씨를 보내 후원해 준 일이 있다. 운흥사에서 3·15선거 전

고 싶어 하시며 웃을 벗고 밭을 지어 공양 대접하는 것을 보면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저런 보살이 어디 있노” 생각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대본산 주지가 어찌 저렇게 될 수 있느냐” 하였지만, 그분은 그 나름대로 철학과 신행이 철저해서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고 절에서 나오는 것은 철저히 일전 한 푼도 가정생활에 보태 쓰는 일이 없었다.

넉넉하지는 못해도 사모님께 서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었고, 또 스님께서도 일찍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전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학금을 마련하여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주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께는 적어도 한 달에 두 세 번은 공양을 냈다.

새벽에 도량석을 하여 고성읍 내에 저렁저렁 목탁소리가 들

릴러 대중강연을 하고, 지나가는 스님께 잡자리를 제공하는 초제사를 운영했으며, 거리에 탁발을 나온 스님이라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 항상 <몽산법어(蒙山法語)>를 읽으며 ‘휴휴유미’를 읊으며 자리에 앉았다.

〈몽산법어〉는 ‘선의 교과서’로 불리워 만큼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간행본이 많은 스님들과 재가 선객들이 읽어 온 책. 고려말 나옹 스님이 원나라에서 몽산 스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가져 온 <몽산법어>에는 꿈속에서의 화두를 잡는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등 간혹 선 수행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세속의 번뇌와 모든 인연을 끊고 외출과 독서도 삼간 채 입심으로 선 수행을 하면 3년 이내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선어록이다.

〈몽산법어〉를 중심으로 일상 속의 선 수행을 해 온 포광 스님은 제자들에게도 생활사에서 좌선

두 손가락 소지하고 수계... 불우한 학생·노인 보살피던 ‘보살’

방공정년 교육 받을 때라던지, 이 대통령이 방편해 남산 공원에서 현영사 하는 일을 필자에게 시켜 어쩔 수 없이 현영사를 한 일이 있다. 이 일로 인해 고성 불자들이 좋아하 보광사에 대해 비하원을 마련하고 시인 서봉설 씨와 함께 운영하게 했으니, 스님의 포교정신과 구도정신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

교인들이 전단을 뿌리고 돌아다니면 “우리로 전단을 만들어 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교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선전하면 “우리들도 마이크를 들고 선전해야 한다”고 외쳤다.

항상 감점 감투에 먹물 두루마기를 입고 걸어 다니셨는데, 적어도 하루에 두 번씩은 가정에 꼭 들른다. 사모님이 혼자 밥을 해 먹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차피 산 속에 들어가 도를 닦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난 인연이라도 서운하지 않게 해주

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불교 포교 반 이상을 이루거든. 내가 병이 들어 목탁을 제대로 치지 못하니 어찌 도량석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고성불교는 외롭지 않을 것인데.”

터미널까지 나와서 환송해 주시던 그 모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그 뒤 서울에 와서 얼마 쯤 있다가 시흥 해명양로원에 갔더니, 어려서 구두 닦기를 하며 대비학원에 다니며 글을 배우던 학생이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군법사가 되었다가 해명양로원 법사가 돼 있었다.

“포광 스님과 사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나 그분의 장학금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나와 군법사가 됐다가 도선사와 인연을 맺어 이곳에 파견됐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시. 1년 이면 적어도 두 차례씩은 극장을

할 것을 당부하곤 했다. 물론 ‘좌선’이란 앉아서 하는 수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화두에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이 화두를 잡는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등 간혹 선 수행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세속의 번뇌와 모든 인연을 끊고 외출과 독서도 삼간 채 입심으로 선 수행을 하면 3년 이내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선어록이다.”

스님은 바로 이 좌선과 화두 속에서 영원히 삼매(三昧)에 들었을 것이다. 창당 스님은 청정비구로서 한국불교를 정화하면서 떠났지만 스님의 도반 김형업 스님은 철저한 보살로서 만난 인연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해탈시켰다. 맑고, 적고, 크고, 작은 데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야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지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지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지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지죽염 230g 55,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양비 2,500원 (50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도봉이 매달”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동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석광 장학회 기금조성을 위한 작품전

석광 石光 작품전

익지않은 과일이 분명하건만 불보살님의 도움으로 너무나 부족한 필을 보임에도 한편으로는 즐겁지만 부끄러운 마음 어쩔수 없습니다.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 꽃피고 서리 내린지 몇해 이젠가? 지혜의 눈이 열리면 부처님의 진리는 천리밖에 떨어져 있더라도 모두 상통하는 것이 마음법이라 했던가. 안목을 갖추고자 사생결단음..... 항상 목에 철갑을 쓰고 벗지 못하고 있으나 한결 부끄러움 없이 소를 잘 밟고 잘 살피고자 합니다. 증명해 주옵소서. 법계의 모든 불보살님 계수귀명 하옵니다.

전시일정 : 2009년 6월 11일 - 17일까지
개관일시 : 6월 11일 오후4시
전시장소 : 인사동 백아미술관
문의 : 010-9482-3348(석광)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부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禪)선종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3권**
전 30권중 제 1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을 곁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펴고 숨어있던 걸집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한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한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빈아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